# 사성제의 본뜻 여래장에 있어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㉑ 여래장

"거룩한 진리(聖諦)란 것은 매우 심오한 뜻을 말한 것이므로 미세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니어서 지혜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세간에서는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깊고도 깊은 여래장(如來藏)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래장은 바로 여래의 경계이므로 성문·연각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래장 그 자리에서 거룩한 진리의 뜻을 말한 것입니다. 여래장이 깊고 깊은 것이므로 거룩한 진리(聖諦)도 깊고 깊다고 하는 것이며, 미세하여 알기 어렵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니므로,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알 것이요, 일반 세간에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라 합니다."

〈승만경〉에서는 성제(聖諦)의 의미를 여래장에 두고 설한다. 여래장(如來藏)이란 여래의 씨앗이 갈무리되어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로 일체중생이 갖추어 있는 불성(佛性)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생이 불성을 갖추어 있는 그 자체가 여래장이다. 어머니 몸에 태아가 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승만경〉이 여래장 사상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이 장과 다음의 법신장(法身章) 등에서 여래장을 계속해 설하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만경〉의 주제가 이승(一乘)과 여래장(如來藏)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앞의 장(章)에서 설한 사성제가 알기 어려운 것은 깊고 깊은 여래장을 설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사성제의 본뜻이 여래장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논서에 따라 여래장을 법신(法身) 또는 진여(眞如)로 보기도 한다. 〈보성론(寶性論)〉에서는 여래장을 법신이나 진여와 동일한 구조로 보고 있다. 다만 〈화엄경소초〉에서는 여래장을 여래장성이라 말하여 생멸문 가운데의 진여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화엄학을 완성했다고 알려진 현수 법장(賢首法藏, 643~712)은 교판론(敎判論)을 통해 여래장연기종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론체계를 내세웠다. 그는 여래장에 의지하여 중생의 생사와 열반이 일어난다는 여래장설과 아뢰야식설을 통합하여 여래장연기를 내세웠다. 그는 〈승만경〉, 〈능가경〉, 〈밀엄경〉과 〈대승기신론〉, 〈보성론〉 등의 경론을 의지하여 여래장연기설을 내세우는 연래장연기종이란 말을 썼다. 이 종은 여래장과 아뢰야식을 하나로 묶어 연기의 주체를 삼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종래의 중관사상이나 유식사상은 여래장과 아뢰야식을 별도로 세워 중관은 여래장 쪽에서 유식은 아뢰야식 쪽에서 이론을 전개해 오던 것과 달리한 것이다. 여래장이 조건에 따라 아뢰야식으로 전환하여 이(理)와 사(事)가 나눠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理)와 사(事)가 융통하여 현상계와 여래장이 상호 연기적 관계를 맺어 서로 교철(交徹)하고 융통무애(融通無碍)하게 된다고 했다. 진여문은 이법계(理法界)가 되고 생멸문(生滅門)은 사법계(事法界)가 되며 서로 융통하는 것이 이사무애법계가 되는데 이것이 일진법계(一眞法界)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일심이 곧 근본법계라는 것이다. 또 여래장연기는 종교(終敎)이며 진여문은 돈교(頓敎)이고, 일진법계가 원교(圓敎)라는 판석을 하기도 했다.

여래장에서 사성제를 설한다는 것은 여래장이 없으면 사성제를 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여래장은 불성(佛性)이다. 불성에서 사성제를 설하여 불성에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중생이 불성이므로 법신과 같고 불성인 법신이 중생과 같으므로 불성에서 성제를 설하여 불성을 알게 하는 것이 부처님 설법의 본래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제의 본래 뜻이 번뇌를 끊는다는 이승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경지에 나아가야 여래장 공덕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여래장 안에는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공덕이 있다고도 말한다. 또한 중생계 모두가 여래장이므로 이 여래장을 번뇌의 티끌에 파묻어 두지 말라는 것이다. 보물을 자기 집 마당 속에 파묻어 두고 그걸 잊어버려 가난한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비유와 같다. 불교 전반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승만경〉의 여래장 이야기는 인간을 자각시키는 큰 울림의 메시지가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한때의 악행도 염불하면 구제된다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㊹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염불(念佛)이란 의미 속에는 모든 우주 만법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서, 또한 깨달은 진리를 미혹한 중생들에게 전하여서 중생 모두가 생사윤회의 고통을 뛰어넘어 상락아정(常樂我淨)의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불(佛)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염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불은 '자각각타 각행원만하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은 고통 속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자대비를 실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구세력과 본원력을 믿으며, 보살이 갖추신 지혜와 대자대비심에 바탕을 둔 보리심과 공덕을 기억하여 잊지 않기 위해 끝없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염불의 의미와 염불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증일아함경〉 제11집 '억념품'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하남이여! 이곳에서 너는 여래를 억념(憶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저 세존은 응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마하남이여! 성인의 제자는 여래를 억념할 때 마음속으로 탐욕에 얽매이지 말라. 이때는 여래에 의해 마음이 바르게 된다. 마하남이여! 성인의 제자가 마음이 정직하면 의명(義名)을 얻고 법명(法明)을 얻으며, 마음에 이끌리는 곳에 즐거움(歡悅)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면서 기쁨(喜)이 생기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낙(樂)을 받게 되며, 낙을 받으면 마음속에 정(定)을 얻는다. 마하남이여! 이 염불은 거닐 때도 닦아야 하고, 머무를 때도 닦아야 하며, 앉아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누워있을 때도 닦아야 한다. 사업을 할 때도 닦아야 하며, 자식들에 의해 산란한 집에 있을 때도 닦아야 한다."

경에서는 여래를 억념(憶念)하는 것을 '염불' 이라 하고, 열 가지 여래의 이름인 십호를 억념하는 것을 염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부처님의 공덕을 염불함에 있어서는 행주좌와를 가리지 말고, 어느 곳 어느 때나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염불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 부처님 본원력에 의지한 타력수행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은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타력적인 수행입니다. 염불수행은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과 대자대비한 구세력에 입각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원(本願)이란 말은 부처님이 되기 전에 보살로서 인행(因行)을 닦을 당시, 성불을 이루게 되면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건지고야 말겠다' 는 대비의 서원(誓願)입니다. 이러한 중생구제의 대비서원과 보리심이 관세음보살님께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며 칭명하는 염불수행을 통해 성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의 수승한 공덕에 대해서 〈나선비구경〉에서 나선비구와 왕의 문답으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작은 돌을 가지고 물에 던지면 돌은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라는 질문과 "100척이나 되는 큰 돌을 배 위에 두면 그 배는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배에 있는 100척이나 되는 큰 돌이 배에 의해 가라앉지 않듯이 비록 본래 악한 행동만 하는 사람이라도 한때 염불하면 부처님의 본원력이 배가되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본원력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굳게 믿기 때문에 염불하여 천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㉑ 뱀에 대한 비유의 경 ②

# 오온으로는 보고 들을 수 없다

**"그는 보고 듣고 추측하고 분별하고 획득하고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성찰한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긴다. 또한 그는 이러한 견해의 관점, 즉 '이것이 세계이며, 이것이 자아이다. 나는 죽은 뒤에도 상주하고, 견고하고, 영주하고, 변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히 이처럼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긴다. 그는 이와 같이 여기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해 혼란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좋은 일을 할 것' 이고 '옳은 일을 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 '착한 사람' 이라고 안다. 그러나 진리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 옳은 일은 인연에 따라 언제든 전도될 수 있지만, 진리는 그 자체로 불변이어서 착한 일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리는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 보고, 듣고, 추측하고, 분별하고, 획득하고, 추구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찰한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긴다. 이것만이 착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퇴전을 모르는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는 것이 어려움이지, '무엇을 모를까' 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고 듣는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 이 말을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글자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곳을 향하는 수행자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가 절실하게 공감될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핵심에 주목해 보자. 물질, 느낌, 인식, 욕구, 의식은 고정성 없이 변화한다. 변화하는 것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물을 보고 들으려고 하니 '옳음' 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을 변화한다고 보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볼 때 세상의 시공간이 흐른다.

이렇게 빠져서 보고 있을 때 변화하는 것으로 얼마나 신속히, 바르게 눈뜰 수 있는가는 앎의 깊이와 직결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을 강조하신 것이다. 스스로가 완전히 멈추었다는 것을 알 때, 그 움직이는 것은 실체 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것은 실체 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바로 지혜로서 꿰뚫어 버린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해 혼란되지 않는다.

이처럼 수행은 몸과 마음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아는 것일 뿐이다.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것이 옳은 수행이고, 착한 수행이 되는 것이다.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것은 모양도 만들지 않고 소리도 만들지 않아, 세우는 일도 없고 무너지는 일도 없고, 획득하는 일도 없고 잃을 일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고 보여주지 않는 것도 없고, 들려주는 것도 없고 들려주지 않는 것도 없고,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없어진다. 그는 보이는 그대로 보이고 있고, 그 보이는 것에 오직 침묵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침묵하는 것은 말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님을 알리려고 침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온으로 보고 들을 수 없음을 알듯이, 추측하고 분별하고 획득하고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성찰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수행임을 성찰한다. 이러한 수행은 지식도 필요 없고 방식도 필요 없이 지금 내가 '나' 라고 하는 오온을 잘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일인 줄 알면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THE WORLD BUDDISM HEADQUSTERS OF SERVEEING MONKS

봉 社團法人 世界佛教僧皇城 設立 축

**설립취지**

세계불교가 불조의 혜명을 잃고 일불 제자의 僧伽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AD728년 신라 구법승으로 중국에 건너가 달마, 혜가, 승찬, 도신, 홍인, 처적, 무상으로 이어지는 해동 선맥을 전수, 달마조사(達摩祖師)의 전의가사(傳衣袈裟)를 이어받아 정중종(淨衆宗)을 개창 정중선계(淨衆禪系)의 선법을 촉지(蜀地)뿐만아니라 중국의 서남국인 돈황(敦煌), 티베트(吐番)와 남조(南詔)까지 전파되어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초기의 종조인 정중 무상공 존자의 법맥을 재조명하고, 현창(顯彰)하여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이다. 더불어 세계불교국가간 유대를 돈독히 하여 부처님 법을 세계에 홍포하고자 한다.

**권선문**

무상선사(無想禪師)의 연구와 무상선사가 최초로 확립한 정중선파(淨衆禪派)의 선법이 촉지(蜀地)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남국(西南國)인 돈황(敦煌), 티베트(吐番)와 남조(南詔)까지 전파되는 등 실질적 중국 선종을 대표하는 초기 종파로 달마 대사의 전의가사(傳衣袈裟)가 무상대사에게 이어진 법맥이 마조도일(馬祖道一)에게 이어진 사자관계(師資關係) 등을 밝히고 정중 무상공 존자(淨衆 無相空 尊者)를 현창(顯彰)하여 법맥을 재정립 하고자 합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불의(佛意)로 불교중흥(佛教中興)에 함께 할 제방의 종단(宗團)과 사찰의 동참을 바랍니다.

世界佛教僧皇城 理事長 弘山 玄佛 稽首

THE WORLD BUDDISM HEADQUATERS OF SOVEREIGN MONKS
34. Sedobuk-ro 149beon-gil, Sedo-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TEL : +82-041-832-4153 FAX : +82-041-833-4154 Mobile : +82-10-6478-1569

社團法人 世界佛教僧皇城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가입신청 문의 : 010-6478-1569 TEL 041-832-4153

수희동참 단체 : 선농교단 우리불교조계종,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화쟁교단 분황종 외